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선언 · 외

문화개혁시민연대(대표 도정일) 등 5개 단체는 지난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가칭, 이하 국민운동)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가한 단체는 문화개혁시민연대를 비롯,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상임대표 한상완) 등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한 지식사회로 만들기 위해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우선 도서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도서관 운영의 안정화·내실화를 통해 지식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문화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시민들의 힘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앞으로 1차 목표로 ‘도서관의 콘텐츠 예산 증액’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 운동, 각종 토론회와 연구회 개최, 도서관 콘텐츠 실태조사와 백서발간,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오는 4월 말경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APPA 출판상 도서 공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APPA(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출판상 신청 도서를 공모한

다고 밝혔다. 응모대상은 지난해 발행된 도서로, 다른 APPA회원국의 언어로 번역출판된 도서나 APPA 회원국 소속 출판사간에 공동으로 합작출판한 도서다. 응모할 출판사는 신청서와 해당 도서 2부를 오는 3월 14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735-2702

IFLA 2006 서울총회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06 서울총회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 별관 2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북토피아의 이익이 곧 출판계의 이익이다”

북토피아 신임 대표에 선임된 푸른숲 김혜경 대표



국내 106개 출판사가 공동출자해 세운 도서포털사이트 북토피아(booktopia.com) 신임 대표에 푸른숲 김혜경 대표(48)가 선임됐다. 김대표는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토피아 경영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김대표와의 일문일답.

— 지난 1999년 9월 북토피아가 설립됐을 때만 해도 출판계는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 일부에서는 북토피아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출판계의 시각을 반전시킬 계획은 있는가.

“북토피아는 그동안 출판사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서점 운영, 전자책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여러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단지 아직은 투자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이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은 단기간에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대표직을 맡은 다음 북토피아 경영전반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실무자들이 업무를 잘 이끌어 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무적인 사실은 일부 사업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 올해부터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크게 두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번째는 어린이 멀티 동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현재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어린이 멀티 동화 100

개 타이틀의 개발을 마친 상태다. 날권 판매의 경우 소비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키즈토피아(kidstopia.com)를 통해 월회비 1만원 정도를 받는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 이동통신망 사업자와 제휴해 휴대전화로 문예물을 내려받는 서비스다. 특정 업체와 계약성사단계에 이르렀는데, 《국화꽃 향기》를 비롯한 다수의 베스트셀러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전자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미래 출판환경은 한마디로 말해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전자책의 경우 베스트셀러, 하이퍼문학, 맞춤형 정보 분야에서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토피아도 이같은 전망 아래 전자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북토피아에 상근하면서 최근의 침체분위기를 일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토피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밝혀달라.

“북토피아는 106개 출판사가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런 면에서 북토피아의 이익은 출판계 자체의 이익이 된다. 애초의 설립목적대로 ‘종이책과 e-북의 꿈같은 만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낙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북토피아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초기단계라 개별 출판사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나갈 생각이다. ‘교통정리’에는 자신 있다. 출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 이권우 기자

온·오프라인 결합형 서점 '북세통' 개점

전국 1백여개의 중대형 서점과 제휴한 온·오프라인 결합형 서점 '북세통' (대표 김영범, www.booksetong.com)이 지난 3월 1일 개점했다. 북세통은 특히 출간된 지 1년 이내의 구간도서를 정가의 50% 수준으로 재조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오렌지북'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 또한 제휴서점과 택배를 이용해 회원에게 책을 배달하며, 구매액의 5%도 적립해준다. 북세통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판문화학회, 학술포럼 개최

출판문화학회(회장 전영표)는 지난 2월 2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정기 학술포럼과 총회를 개최했다. <올드 매거진의 조명과 뉴 웹진의 실상 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1부 <잡지·출판인으로서의 파인 김동환 연구>와 2부 <개혁 잡지와 뉴 웹진 연구>로 나뉘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신구대 출판미디어학과 전영표 교수가 <<삼천리>지 발행과 잡지인 김동환>을, 동원대 출판미디어학과 부길만 교수가 <파인의 <삼천리문학>과 <만국부인>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한국출판사연구소 고덕환 소장은 <출판인으로서의 파인 김동환 연구>를, 신구대 출판미디어학과 류재업 교수는 <잡지인 파인의 문학 세계>를 통해 김동환을 재조명했다. 2부에서는 동서울대 광고디자인학과 박암중 교수의 <개혁지 <뿌리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 월간 <과학동아> 디자이너 최항아씨의 <월간 <심마니 라이프>의 온·오프라인 이용 행태 연구>, 월간 <식당> 육주희 편집장의 <레디 웹진의 현황과 그 구성 양식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목록 배포

어린이도서연구회(이사장 이주영)는 <2001년도 학년별 어린이권장도서목록>을 4만부 발간해 일선 초등학교와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도서목록을 받고 싶은 일반인은 편지봉투에 170원짜리 우표 10장(제작비와 우송료)을 넣어 '서울시 중로구 동승동 1-1번지 (사)어린이도서연구회'로 보내면 된다.

⇒ 3672-4447, www.childbook.org

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선정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연호)는 제12차 <이달의 책>을 선정, 발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1 <그늘의 집>(현 월, 문학동네), <문학과 철학의 논쟁>(마크 에드먼드슨, 문예출판사), <순정>(성석제, 문학동네),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원종찬, 창작과비평사),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완서, 돌베개), <기억들>(송재학, 세계사) ▲문학2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유용주, 솔), <기싱의 고백>(조지 기싱, 효형출판), <무덤>(노신, 선학사), <새 근원수필>(김용준, 열화당) ▲인문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황상민, 김영사), <미녀와 야수, 그리고 인간>(김용석, 푸른숲),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정재서, 푸른숲), <왜 동양 철학인가>(한형조, 문학동네) ▲예술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애경, 책세상), <박물관학 개론>(이보아, 김영사), <축제 만들기>(김승현, 열린책들), <명화로 읽는 성서>(고종희, 한길아트), <북한미술 50년>(이구열, 돌베개), <판소리와 풍속화—그 닳은 예술세계>(김현주, 효형출판) ▲어린이 <내 친구 11월의 구름>(힐러리 루벤, 우리교육), <또야 너 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권정생, 우리교

육), <미리 쓰는 방학 일기>(박상률, 사계절), <어린이를 위한 한국 현대 명화 감상>(이규일 외, 지경사), <위대한 영혼, 간디>(이옥순, 창작과비평사), <울리와 괴물>(유타 바우어, 문학동네), <행복한 청소부>(모니카 페트, 풀빛), <호랑이 뱃속에서 고래 잡기>(김용택, 푸른숲) ▲사회과학 <디딜방아 연구>(김광연, 지식산업사), <천년의 삶을 이어온 종가 이야기>(이연자, 북21 컬처라인), <대공황 이후 유럽 경제>(찰스 페인스틴 외, 동서문화사), <오만한 제국>(하워드 진, 당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배경내, 우리교육) ▲자연과학 <고통 받는 몸의 역사>(자크 르 고프 외, 지호), <두 얼굴의 과학>(제인 그레고리 외, 지호) ▲청소년 <내 남자친구 이야기> <내 여자 친구 이야기>(이상 크리스티앙 그르니에, 사계절), <중국 문화 답사기>(위치우위, 미래 M&B), <쓸모없음의 쓸모있음>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 <무엇을 사람이라 하는가>(이상 심백강, 청년사), <역사스페셜2>(정종목, 효형출판).

| 한국서련·출판협회 공동 집계 |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2001.2.16~2.22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국화꽃 향기	김하인	생각의나무	소설
2	상도(1)	최인호	여백미디어	소설
3	힐링 소사이어티	이승현	한문화	비소설
4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5	2001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신경숙 외	문학사상사	소설
6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1)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사회과학
7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실천문학사	소설
8	가시고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9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생소	동문선	비소설
10	김영삼대통령 회고록	김영삼	조선일보사	비소설
11	원칙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	김영사	인문사회
12	도올논어 2	김용옥	통나무	인문사회
13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	청림인터랙티브	경제·경영
14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소설
15	공자 노자 석가	모로하시 데츠지	동아시아	인문사회
16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김태연	밀알	비소설
17	BODY FOR LIFE	BILL PHILLIPS	한국언론자료	비소설
18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구본형	김영사	경제·경영
19	가야산으로의 7일간의 초대	권기현	한언	비소설
20	WORD SMART	에덤 로빈스 외	넥서스	비소설